

塞翁之馬 塞 변방 새, 翁 늙은이 옴, 之 갈 지(…의), 馬 말 마.

세상 만사가 변전무상(變轉無常)하므로, 인생의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

夫禍福之轉而相生 其變難見也.

近塞上之人 有善術者 馬無故亡而入胡 人皆弔之 ,

其父曰 此何遽不爲福乎,

居數月 其馬將胡駿馬而歸

人皆賀之 其父曰 此何遽不爲禍乎 家富良馬,

其子好騎 墮而折其髀 人皆弔之 其父曰 此何遽不爲福乎 ,

居一年 胡人大入塞 丁壯者引弦而戰 近塞之人 死者十九 此獨以跛之故 父子相保 ,

故福之爲禍 禍之爲福 化不可極 深不可測也. < 淮南子 人間訓篇 >

유래 :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要塞) 근처에 집을 잘 치는 한 노옹(老翁)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노옹의 말(馬)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옹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 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치하하자 노옹은 조금도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화가 될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옹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옹은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누가 아오? 이 일 이 복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자 마을 장정들은 활로 싸우다가 십중아홉이 죽었다. 그러나 노옹의 아들만은 절름 발이었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에서 福이 禍가 되고 禍가 福이 되는 것은 그 변화가 끝이없고 깊이를 헤아릴수가 없다.

狐假虎威

狐:여우 호 假:빌릴 가 虎:범 호 威:위엄 위 /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림.

荊宣王問群臣曰 “吾聞北方之畏昭奚恤也 果誠何如”

群臣莫對 江一對曰 “虎求百獸而食之 得狐

狐曰 子無敢食我也 天帝使我長百獸 今子食我 是逆天帝命也

子以我爲不信 吾爲子先行 子隨我後觀 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

虎以爲然 故遂與之行 獸見之皆走 虎不知獸畏己而走也 以爲畏狐也

今王之地方五千里 帶甲百萬 而專屬之昭奚恤

故北方之畏奚恤也 其實畏王之甲兵也 猶百獸之畏虎也” . 〈戰國策 楚策〉

*荊:春秋시대 때 楚의 옛 이름 *帶甲:갑옷을 입은 병사 *昭奚恤 : 人名, 楚나라 장수

초선왕이 군신들에게 물었다. “내가 듣건대 북방의 나라들이 소해홀을 두려워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 오?”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江一이 나서 이같이 말했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을 잡아 먹고 사는데 (마침) 여우를 잡았습니다..

여우가 말하기를. '그대는 감히 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천제께서 나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지금 나를 잡아 먹으면 천제의 명을거역하는 것이 된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가 살펴보라.'

호랑이는그렇다고 생각하고 여우를 따라 걸었습니다.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 모두 달아 났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국토가 사방 5천 리, 군사가 백만인데 이를 소해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의 나라들이 소해홀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대왕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한것과 같습니다."